

조현준, 세계 섬유 1위 굳히기... 300조 中시장 현장 행보

〈효성 회장〉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18’

글로벌 21개 고객사와 동반 참가 연 5% 성장 中의류시장 공략강화 지속개발·혁신 등 역량집중 강조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세계 섬유 시장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효성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조현준 회장이 글로벌 21개 고객사와 함께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섬유 전시회 ‘인터텍스타일 상하이(Intertextile Shanghai) 2018’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현준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연 300조원 규모의 중국 의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 초 베트남과 인도를 방문해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과 사업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계 최대 섬유 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가운데)이 상하이에서 개최된 섬유 전시회에서 글로벌 고객사 부스를 찾아 섬유시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있다.

/효성

인 중국에서도 리딩기업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직접 참석했다.

전시회에서 조 회장은 중국 의류시장 이너웨어, 스포츠의류, 캐주얼의류 각 부문에서 1, 2위를 달리는 브랜드 마니폼(Maniform), 안타(Anta), 이션(Yishion)을 만나 고객과의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분

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글로벌 1위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맞춤 마케팅활동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의류산업 시장은 약 1조7970억위안(유로모니터 2016년 말 기준·약 300조 원) 규모로 연 평균 5% 이상 성장을 지속

하고 있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 섬유업체 아타이, 베트남 직물염색업체 흥엔 등 21개 글로벌 고객사와 동반 참가해 고객사의 영업활동과 상담을 지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올해 2월 응우옌 쉘언 폭 베트남 총리를 만나 사업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스판텍스 공장 건립 관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8월에는 위안자진 중국 저장성 성장을 만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효성에서 섬유·무역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효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 가지 테마 중심의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첫 번째 테마인 ‘다양한 기능의 복합’에서는 에슬래저룩을, 두 번째 테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서는 페트병을 이용한 리사이클 원사 마이판 리젠으로 제작한 의류를 각각 선보였다. 또 ‘패션의 끝’에서는 프랑스 벨리로디와 협업해 2020년 봄여름 트렌드를 반영한 원단을 전시했다.

현재 효성티앤씨는 30개국 100여곳의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취저우·자싱·광둥·주하이와 베트남 스판텍스 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조 전 부문에 걸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제어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높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차, 전기차 시승고객 전비왕 가린다

〈電比王〉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하남서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신규 출범

현대자동차가 10월부터 자사 브랜드 체험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과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남에서 전기차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전비왕을 가리는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규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및 하남이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는 방문 고객이 현대차의 전기차(코나 EV 또는 아이오닉 EV)를 타고 정해진 시승 코스를 우수한 전비로 주행할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친환경 테마의 시승 프로그램이다.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에 참가하는 고객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및 하남 주변의 약 15km로 구성된 시승코스를 주행한다. 현대차는 시승차량의 계기판에 기록된 ‘평균 전비’를 기준으로 매달 각 거



현대 모터스튜디오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론칭.

점과 차종별로 최고 전비 기록자 3명을 선정해 총 12명에게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블루 드라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KT, AI 기반 가상발전소 기술 공개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VPP 기술 적용한 도시 모형 통해 차별화된 가상 에너지 세상 소개

KT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KT 에너지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KT 전시관은 GIGA인프라와 ICT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KT 가상 에너지 서비스 소개를 통해 KT가 꿈꾸는 에너지 가상도피아 세상을 연출한다. 세부 전시는 ▲KT-MEG 플랫폼 기반의 미래 가상발전소 모형을 중심으로 ▲GIGA 에너지 매니저 ▲GIGA 에너지 DR ▲GIGA 에너지 켄 ▲GIGA 에너지 차지 ▲GIGA 에너지 트레이드 등을 소개하는 코너로 구성된다.

KT-MEG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엔진 ‘이브레인’이 탑재된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이다. KT-MEG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되고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들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가상발전소 기술을 대형 모니



KT 전시관 조감도.

/KT

터를 통해 보여준다. 관람객은 가상발전소(VPP) 기술을 적용한 도시 모형을 통해 미래 에너지 세상을 볼 수 있다.

가상 에너지 매니저는 공장, 빌딩,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알아내고, 비용을 절감해 준다. KT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 후 적정 계약전력으로 변경하는 기본요금 절감과 설비의 최적 운영을 통한 추가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가상 에너지 DR은 고객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절감요인을 파악한 후 야간 전력을 전력거래소(KPX)에 등록하고 감축이행관리를 지원한다. 가상 에너지 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구축에서 운영·관제서비스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상 에너지 차지는 전기차를 활용한 EV-DR, V2G 등 미래기술을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장소를 안내하고 예약,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차징메이트도 사용해 볼 수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LG이노텍,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개최

LG이노텍이 지난달 28일 서울과 청주 지역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 체험교실’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과학체험 교실은 LG이노텍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UV LED, 열전 반도체 등 최신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실험 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아이들의 실험을 돕기 위해 LG이노텍 석·박사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서울 강북구, 동작구 2개소에서 총 8회 열었던 과학체험 교실을 올해는 광주, 구미, 안산, 파주, 청주, 오산 등 전국 8개 지역에 걸쳐 총 48회 개최했다. 과학체험 교실에는 LG이노텍



9월 28일 LG이노텍이 서울시립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린이 과학체험 교실’을 개최했다.

석·박사 연구원 50여 명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여 학생은 160여 명에 이른다.

서울과 청주에서 열린 이번 과학체험 교실은 ‘청소로봇’과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강의와 실험 키트 만들기, 퀴즈 맞추기 등이 진행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스마트폰으로 조명 밝기 조절... IoT 조명 선보

LG유플러스-대진디엠피 사물인터넷 방등·거실등 출시 100%~15%까지 1% 단위 조절

LG유플러스는 LED 조명 제조 기업 대진디엠피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조명 ‘IoT 방등’ 및 ‘IoT 거실등’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IoT조명은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에 대진디엠피 LED 조명을 연동한 IoT 상품이다. 이 제품은 ‘IoT@home’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명 전원과 밝기 등을 원격으로 제어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IoT조명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할 수 있다.

IoT조명은 스마트폰으로 조명 밝기를 100%에서 15%까지 1% 단위로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눈에 편안하게 맞는 밝기를 찾아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분위기에 맞는 조명 연출이 가능하다. 또 자연 채광에 따라 밝기를 조절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제품은 다른 홈IoT 기기들과 서로 연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oT속면알리미가 잠이 든 것을 감지하면 IoT조명과 TV가 자동으로 꺼지는 취침모드가 작동해 숙면을 돕는다. ‘동시실행’ 기능을 활용하면 IoT조명 및 IoT멀티탭에 연결된 가전 등 여러 기기를 함께 끄고 켤 수 있다.

/김나연 기자 silkni@